



## 패널 토론

### 곽경애

참교육학부모회 강릉지회장



며칠 전에 참석했던 포럼이 하나 있습니다. 선발과 줄세우기를 목적으로 하는 지금의 5지선다형 객관식 평가시스템을 돌아보고, 논서술형 평가 도입을 제안하는 토론회였어요.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 교수, 학부모 등이 모여 어떻게 하면 공정하면 서도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평가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작 평가의 대상인 고등학생 토론자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 우린 이미 충분히 피곤하다'는 겁니다. 강릉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주기적으로 행하고 있는 라운드테이블에서도 청소년들의 문화가 궁금한 어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약간의 오해를 살 만한 해프닝이 있었대요. '어른들이 모여서 왜 우리 얘기를 하지?'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 많은 고민을 하지만, 정작 핵심주체는 저 멀리두고 어른들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오류를 종종 범합니다.

심한기선생님 발제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미래와 진로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기대, 학업에 대한 압박감, 과한 경쟁사회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이들이 생각이 없는 기계도 아니고, 어른들이 짜여놓은 인생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끼워 맞춰놓고 '그렇게 사는게 옳은 것이다'라고 강요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병들지 않는 청소년이 있다는게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현상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지요. 김재우군의 발제문처럼 '어른들은 자신이 걸어온 길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어른들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강릉에는 청소년마을학교인 '날다학교'가 있습니다. 설립초기엔 읍면단위에 거주하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인문학적 복지를 제공해주고자 만들어 졌지만, 지금은 지역의 전문가들과 청소년들을 연결시켜 학교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마을의 다양한 어른들을 만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열정으로 날다학교는 5년째 유지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아이들은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몰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스스로 찾아볼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지점에서 3가지 정도를 우리 어른들에게 제안해봅니다.

첫번째는 이 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자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선심쓰듯 아이들에게 호의를 베푸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당당하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가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어른들이 함께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결고리를 끊고 아이들이 좀 더 즐겁고 의미있는 중고등학교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왔으면 합니다. 대학에 대한 압박감으로 현재를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한번뿐인 10대 시절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내고자 노력하는 시간들로 채워졌음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여러가지를 경험하고 잘 안되어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 그야말로 쿨하게 잘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부모의 재력과 가정환경에 의존해왔던 그간의 시스템을 타파하고 청소년 한명 한명 모두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전 사회적이고 공적인 차원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 시간을 학교 교육과정에 충분히 담아내는 것, 청소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적인 문화생활 공간을 만드는 것, 기존에 잘 만들어져있는 문화시설 인프라를 활용하되 부모의 문화자본과 상관없이 청소년들이 해당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것(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하고 싶은 공부를 이어나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등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 패널 토론

### 이요섭

강원예술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강원예술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이요섭입니다.

제가 토론시 얘기해보고 싶은 방향은,

첫번째,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유입 방안 입니다.

김지우 학생의 사례는, 정말 그렇지 못한 청소년 시절을 보낸 본인이 부러울만큼 멋진 적용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단, 대부분의 학생은 지우 학생이 겪었던 학교 문화의 불합리함을 느끼는 단계에서 그치기가 부지기수 입니다.

그러곤 다양한 형태도 부적응하거나, 혹은 자신의 이상을 접고 순응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어른들의 눈이 아닌, 학생들의 눈에 주류가 되어지는 학생들도 이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많구요.

따라서, 이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러한 프로젝트들도 흔히 말하는 모범생, 어른들 말 잘 듣는 학생들만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강릉 청소년은 없는, 강릉시 관광문화 입니다.

강릉시는 예로부터 관광산업의 많이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이 분야가 동계올림픽 개최, KTX 개통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단위 관광객에서 관광객의 형태도 바뀌고, 연령대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에 당장 들어가서 #강릉 을 검색해보도, 강릉 여행은 마치 하나의 유행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연히 젊은층이 선호하는 유형의 관광업, 상업 또한 성황하고 있는 현 상황인데, 그곳에 우리 강릉시 청소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문화의 소비는 결국 외지인의 몫이 되고, 자연스레 업계의 타겟층도 외지인 관광객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좋은 교육 환경과 인프라를 대신해 우리 강릉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 및 문화적 이점들을,

정작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점. 이 점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패널 토론

이은경

강릉교육지원청 장학사



안녕하세요? 강릉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은경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문화예술, 민주시민교육,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토론 섭외를 받고 "왜 저를 요?"

"담당하고 있는 업무 때문에 그런가요?"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말하면 되겠지요?"

답변은 꼭 그렇지 않다고 개인의 입장을 말하여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가을하늘은 더 높고 맑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을과 연관되는 나에게 소중한 추억은 '가을 운동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체무용을 배우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공평한 기회로 배울 수 있는 예술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되어 우리반 아이들에게 미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교사의 문화예술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수업이 '교사와 전문가의 협력수업'을 많이 시도하여 보았습니다.

이론적인 수업보다는 체험학습 활동도 기회가 되면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결핍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결핍?

많이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오직 그 선택만이 필요한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에서 다른 일에 대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때 되고 싶은 직업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반이 60명 정도였는데 56명 정도가 교사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적었지만 내심 '그렇게 할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청소년들은 많이 달라졌을까요?

심한기님의 조사내용을 보니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어려움)가 '미래/진로에 대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고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 하나 하나의 모습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할 일이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학생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래를 진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반영되지 못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6월 교육장과의 정책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에는 자유학년제 동아리 활동에서 선택할 수 있는 동아리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학교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과의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공유오피스처럼 필요한 요일에 공간을 빌려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과 강릉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가고 싶어도 차량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학교는 인력풀 등의 문화예술자원 매칭을 할 수 있는 자료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마을이 필요하다’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교육지원청이 함께해야 할 일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